

## 동화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

김자연

### 국문초록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 속에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어린 시기 아동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동화 문학에서 남녀는 공평하게 다루어야 할 주체이다. 서구에서는 아동문학 분야에도 페미니즘이 확대되어 있고 우수한 동화들이 성인문학과 똑같이 여성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동안 한국 동화는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정형화된 성차별을 너무도 당연시해온 경향이 짙다. 이에 대한 작가와 독자의 자각이 필요하다. 특히 동화를 쓰는 작가들이 양성 평등 문제에 지금보다 진지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여성 정형화에 대한 편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올바로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문학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인지된 개념은 성인이 되면 쉽게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양성 평등 의식은 아동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투사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은 평등한 성 역할과 미래 지향적 여성 이미지 형상화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 1. 성 역할의 고정관념과 동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남녀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시점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성 역할의 정형화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사회 고정관념을 꼽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근거로 남녀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사회 통념으로 정형화시켜 왔다. 성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 사회 통념은 남녀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의 기초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사의 행동, 교재 등을 통해 남녀 아동에게 각기 다른 삶을 제시해 온 것이다. 교사는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남녀 아동이 가지는 관심과 능력은 각기 다르며 다른 종류의 성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즉, 남아에게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자기 주장이나 경쟁심, 모험심, 자신감 같은 인성을 내세우는 반면, 여아에게는 단정하고 조용하며 인내와 협조하는 것을 기대해 왔다.<sup>1)</sup>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동화를 쓰는 작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동화책 『반장 부반장』<sup>2)</sup>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낫선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다. 편지 보낸 사람은 대전에서 약국을 하며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다. 내용인즉, 아이가 사온 책을 읽었는데 왜 아직도 반장은 남자가 해야 되고 부반장은 여자가 맡도록 그려지는 지 모르겠다며, 글을 쓰는 분들(특히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항의?) 편지였다. 그 편지는 무의식적으로 자행되었던 성에 대한 편견을 깊이 자각하게 했지만 이를 작품 속에 형상화하지는 못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무의식적으로

1) 이인호, 「초등학교 학생의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교사의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1983), p.65.

2) 김자연, 『반장 부반장』(윤진, 1996).

학습되고 주입되는 성 역할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 속에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어린 시기 아동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리(Shirley, 1996)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남녀 아동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에서 성차별성과 성공적으로 투쟁하여 승리한 인물을 다룬 책을 읽은 후, 직업과 사회활동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 태도가 경감되었다고 보고한 바<sup>3)</sup> 있다. 인간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동화문학에서 남녀는 공평하게 다루어야 할 주체이다. 서구에서는 아동문학 분야에도 페미니즘이 확대되어 있고, 『퐁지머리 줄리엣』<sup>4)</sup>, 『슬기로운 아리테 공주』<sup>5)</sup> 등 우수한 동화들이 성인문학과 똑같이 여성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니 아동문학이 발아하여 발전해온 오늘까지, 페미니즘 주제에 진지하게 접근한 동화가 몇 편이나 될까.

여성이 올바르게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문학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인지된 개념은 성인이 되면 쉽게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양성 평등 의식은 아동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투사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에서는 평등한 성 역할과 미래 지향적 여성 이미지 형상화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학자들은 미래의 정보 사회는 기존의 성 역할을 강조해서는 적응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 속에 고정적 성역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에서도 성에 대한 불평등과 정형화

3)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양성평등 교육자료집, 1999), p.55에서 재인용.

4) 엘렌 레이, 김용숙 역, 『퐁지머리 줄리엣』1, 2(풀빛, 1987).

5) 다이애너 콜즈, 김경숙 역, 『슬기로운 아리테 공주』(소하사, 1990).

가 암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동화에 나타난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화에 나타난 성의 고정관념 실태를 제시하고 작가와 독자의 의식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 글은 어린이의 인성과 정서를 함양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화문학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실태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실제 작품에 나타난 양성 평등<sup>6)</sup>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교과서 동화에 나타난 남녀 평등의 실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념, 교육목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내용은 학교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식, 경험의 총체로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규정짓는다. 학생들은 이야기 속에 묘사된 사건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거나 스스로 연습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원칙과 똑같은 원칙이 책 속에서도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므로<sup>7)</sup>, 나라마다 주요한 연구의 관심이 되어 왔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남녀평등 교육체제로 전환될 때만이 창조적 대응력 배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여성개발원의 6차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에도 여성차별’<sup>8)</sup>을 살펴보면,

- 6) 많은 동화에서 성의 불평등과 성역할의 정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녀 평등 문제를 다다루고 있는 작품을 찾기가 더 어려웠다.  
7) 권성아, 「교과서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연구노트」 제8권(행동과학 연구소, 1978), pp.6~11.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의 저자가 여성인 경우는 6.3%에 불과하며,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여성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진·삽화를 포함한 교과서 전반에서 여성들의 등장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으며 그 묘사도 주로 가사 일이나 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이어서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여성의 비전통적인 역할이 남성에 비해 많이 묘사되고 있어 운동을 하거나 모험을 하는 여성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아이를 돌보거나 부엌에서 일하는 남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해 보면, 동화를 비롯한 동시, 수필, 논설 등 저자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성별이 확인된 저자는 총 701명인데, 이 중, 여자는 44명(6.3%) 남자는 657명(93.7%)으로 절대다수가 남성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 성구성 관계에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남녀 혼성비율은 53.0%로 낮고 남자만 등장하는 단원이 44.0%에 달하고 있으며, 여자 주인공 비율은 초등학교가 23.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중학교 39.7%, 고등학교 30.9%에 비해 제일 낮은 수치이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남녀인물들의 출현장소를 보면 일반적 기술에 등장하는 인물들보다 더 정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작품에서 여자가 가정을 배경으로 출현한 비율이 44.6%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야외'를 배경으로 출현한 비율(61.6%)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1백2권, 중학교 26권, 고등학교 23권 등 1백51권의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1년 동안 분석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연구보고서<sup>8)</sup>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성별에 불만이 높으며 성차별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경북 안동지역 어린이신문인 키즈 뉴스가 지역 초등학교생 295명을 상대로 성

8) 한국여성개발원, 「제 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한국여성개발원, 1998).

9) 위의 책(한국여성개발원, 1998).

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성별에 불만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남학생은 3.8%였으나 여학생은 10.9%에 달했다. 여학생들의 불만 이유는 '임신을 해야하는 것', '남자보다 힘이 약한 것' 등 신체적인 제약과 '부모님이 남자만 좋아한다' 등이었다. 또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과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세계 맞는다'는 이유를 꼽았다. 성차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학생은 21.7%, 여학생은 33.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부터 남녀의 역할분담 등을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1975년 교육과학부의 「남녀 교육과정의 차이」에서는 “아동의 성이 다르면 성인기에 수행할 역할 또한 다르므로 각 성에 맞는 역할을 준비하고 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기대하도록 학교가 구조화되어 있다”며 아동기의 성 역할의 정형화된 학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성차별적 요소가 적어야 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성비의 불균형과 성정형화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다 오히려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비의 불균형과 정형성은 어린이의 의식을 도식화하고 성적인 편견을 학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어린 시기부터 인식되는 성차별과 성 역할의 고착화는 어른이 되면 이미 습관화되어 바꾸기 어렵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양성의 평등 문제는 어린 시기부터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0)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집필된 교과서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여성 등장 인물의 출현 비율이 향상되고, 여성 인물이 가정에 제한되지 않는 비교적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 남자의 가사 노동 참여나 여자의 직업 활동을 다루는 의도적인 단원들과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지위 변화를 기술했던 단원들도 눈에 띈다는 점에서 지난 5차 교육 과정기에 비해 긍정적인 진전을 보여주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3. 남녀 평등을 다룬 동화

그 동안 남성중심 시각에서 이루어져 온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은 동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올바른 비평이란 남녀 평등 감각을 전제로 할 때 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왜곡된 여성상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성 시각에서의 작품 해설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여성 시각에서의 비평은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시몬느 드 보봐르의 『제 2의 성』<sup>11)</sup>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즉 생물학적인 성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정된 성역할로 고착되어, 여자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자에 의존하고 예측되는 타자적 존재로 양육되고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흔히 “여자의 본질적 특성인 양육 인되는 연약함, 수동성, 침묵 역시 여자에게 어릴 적부터 강요하여 형성하는 사회제도에 의한 특질일 뿐 여성 고유의 기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동화에서 남녀 평등성 분석은 이러한 여성 이미지(여성 시각) 비평에서 출발한다.

동화에서 남녀 평등을 다룬 작품의 유형으로는,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작품이나 여성주인공이 적극적,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는 작품, 외부 세계가 자기에 요구하는 역할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인물을 그린<sup>12)</sup> 작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화 중 이러한 시각에서 남녀 평등을 다룬 작품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아동문단에 여성 작가가 드물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나마 몇몇 작품이 남녀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어 위안이 된다. 남녀의 대립 구조를 표면화하지 않고 여성이 처한 억압 상태를 그린 작품으로는 강소천의 「인형의 꿈」, 김희숙의 「엄마는 파업중」, 량힐 닐스톤의 「아빠가 길을 잃었어요」 등을, 남녀 성역할의 평등을 다룬 작

11) 시몬느 드 보봐르, 최용식 역, 『제 2의 성』(을유문화사, 1973).

12) 이터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 차별적 요소 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1999), pp.75~78 참조.

꿈으로는 이미에의 「꿈을 찾아 한 걸음씩」, 키르스텐 보예의 「레나는 축구 광」, 여성의 자아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정영애의 「삐뚤삐뚤 오말숙」, 김희숙의 「고은별 이 고은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이러한 유형이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1) 여성이 처한 억압적 현실에 대한 자각

「인형의 꿈」<sup>13)</sup>은 1958년에 발표된 강소천 작품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주인공 정란이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화가 아버지를 둔 정란이는 가난한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다. 부유한 생활을 동경하는 정란이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잘 팔리기를 고대하지만 가난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정란이와 달리 그녀의 어머니는 순종과 인내심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간다. 아버지의 미술 전람회 성공으로 정란이네 가족은 전세 집을 얻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사 도중에 정란이 엄마는 평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불란서 인형을 잃어버린다. 그 인형은 정란이 엄마가 아가씨였을 때, 젊은 미지의 작곡가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훌륭한 성악가가 되면 작은 인형보다 더 큰 인형을 보내준다는 편지와 함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정란이 엄마는 그 인형을 찾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마침내 잃어버린 불란서 인형을 찾게 되고 정란이와 정란이 엄마는 꿈을 이루고 평화로워진다.

「인형의 꿈」은 어른의 내면적인 꿈에 대한 성취 과정을 어린 정란이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가난한 생활고를 이겨내고 성악가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정란이와 정란이 엄마, 아빠의 꿈, 명애와 명애 아버지의 꿈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져 흥미를 더해 준다. 화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 못지 않게 가치관이 서로 다른 세대와 세대간의 이해, 사회와의 융화가 전제되어

13) 강소천, 「인형의 꿈」, 『꿈을 파는 집』(배영사, 1963).



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가족과의 융화를 내세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정란이는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이다. 1950년대에 이러한 여성 인물이 그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화에서작가의 남녀 평등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정란이 어머니가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형상화되고 있기는 하다. 본래 성악가가 꿈인 정란이 어머니의 꿈은 유리 속에 갇혀 있는 불란서 인형의 운명과 병치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리상자가 깨뜨려져야 한다. 이때 유리상자는 가난, 또는 정란이 어머니가 처한 여성의 현실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리라고 하는 장벽이 ‘아이들’에 의해 깨어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유리 상자가 깨어지고 그 속에 갇혀있던 인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정란이 엄마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 ‘성차별주의(sexism)’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그 이면에는 이 작품에서처럼 여성의 억압된 현실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다 중요시할 것은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는 억압상황에서 여성 인물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체적인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삶에 대응해 가는 정란이 모습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어머니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쉬움을 던져주지만, 자신과 어머니의 꿈을 실천해나가는 데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란이의 태도는, 기존의 동화처럼 말 잘 듣는 척하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어려움의 극복 과정을 우연성에 결부시켜 주인공의 의지보다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엄마는 파업중」<sup>14)</sup>은 어머니 입장(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바라보기)에서

14) 김희숙, 「엄마는 파업 중」 『시와 동화』, 2000 봄.

평등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동화이다. 대부분의 페미니즘 작품이 그렇듯이 동화도 남성적 우월 의식이 팽배한 가정에서 억압된 여성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예지네 식구들은 엄마에게 집안 일을 몽땅 맡기고 엄마를 매일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참다 못한 엄마가 주부 직업 파업을 선언하며 뒷뜰 원두막으로 올라간다. 예지네 식구들은 엄마가 하던 일을 대신 하면서 엄마의 고충을 헤아리게 되고 엄마의 입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엄마도 일 주일 내내 집안 일이다 우리들 뒤치다꺼리이다 아빠 시중까지 드시느라고 피곤하신데 왜 엄마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돼요?”

“아, 그거야…… 음,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가 집안일 하는 것은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요! 우리가 서로 집안 일을 나누어서 돕지 않으면 엄마는 파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엄마가 파업을 계속하시면 아빠는 좋으세요?”

인용문은 예지가 아빠와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예지 아빠는 엄마가 집안 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예지는 남녀 역할에 대해 고정된 의식을 가진 아빠에게 엄마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 인용문에 나타난 아버지와 예지의 대화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듯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당 부분 사회화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임을 알게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고착화된 통념은 남성적/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억압한다. 여기서도 집안 일은 ‘엄마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처럼 아버지와 엄마의 일, 집안일과 밖의 일 등 남성과 여성의 행동을 뚜렷이 구분 짓는 성역할 규범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좀더 융통성 있고 서로의 힘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엄마는 파업중」은 엄마라는 존재의 소중함, 가사 노동의 신성함, 또 공

동체 생활에서 협동과 분담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파업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좀더 깊이 다가서는 못했다. 집안 일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단지 엄마가 계속 '파업'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결국 엄마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족이 노동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보다 '식구들이 집안 일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된다. 이 작품과 조금 다른 각도(남성의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규명한 외국의 작품으로 『아빠가 길을 잃었어요』<sup>15)</sup>가 있다. 칼바스티안젠의 아빠는 어느 날 출근길 버스 속에서 한 아이가 제 엄마에게 '아빠들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빠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자동차를 몰고, 고장난 물건을 고친다는 등 여러 가지 **대답을** 들려주지만 아이는 '그건 엄마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해 우리의 **아빠를 당황하게** 한다. 이를 계기로 '아빠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된 아빠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아빠는 이사하는 날, **아빠와** **엄마** 중 한 사람이 출근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기 일(아빠의 일)은 중요하다며 **엄마에게** 이사를 맡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사한** 집을 찾지 못해 길을 잃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이사를 하는 대신 **아빠의** 자동차를 쓰겠다고 했고, **평소** 타지 않던 버스를 타게 된 때문이다. **버스에서** 우연히 한 아이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질문을 통해 **아빠는** 처음으로 자기 존재 가치와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모두 열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각 장마다 **아빠가** 만나는 다양한 남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가족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화시킨다. 가족을 위해서는 가끔 천천히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럼 넌 너의 아이들에게 한 번 만이라도 물어 본적이 있어?”

“어떻게……내가 필요한지……”<sup>16)</sup>

15) 랑힐 닐스톤, 김상호 역, 『아빠가 길을 잃었어요』(비룡소, 1998).

16) 앞의 책, P.86.

그러나 이 작품은 남녀 성역할의 평등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조망하고 있는 여느 작품과는 다르다. 이 동화는 남녀 성역할 문제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틀에 얽매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가서고 있다.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남녀 서로의 이해를 도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와 닿는다.

이외에 여성의 자기 모순적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고운별 이 고운별」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부모의 성(姓)을 같이 쓰는 은별이의 눈을 통해 남녀 평등성에 다가서고 있는 동화이다. 은별이는 일을 하는 엄마를 보고도 할머니 곁에서 이야기만 하고 놀고 있는 고모의 태도에 불만이다. 그래서 고모에게 직접 항의를 하고 엄마에게도 ‘왜 엄마만 일 하나?’고 물어도 보지만 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엄마의 모습을 매우 수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점이 여느 작품과 같고, 은별이 집에서 혼자만 성이 다른 엄마를 생각하여 자기 이름 앞에 엄마의 성을 붙이는 은별이의 태도가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여성의 자기 모순적 입장을 되짚어 보게 하는 동화이다.

“오빠네도 우리 집처럼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엄마도 늘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야 오빠나 새언니도 노후가 편하다고. 도 여자들은 시집 가 버리면 그만이고…….”<sup>17)</sup>

“고모들은 놀고 왜 엄마는 일해?”

“고모들은 할머니 딸이잖니. 난 이 집 며느리고.”

“딸이면 어떻게 며느리면 어때? 모두 한 가족인데.”<sup>18)</sup>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남녀 평등에 관한 문제는 여성 억압의 실태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모순에 빠져 있

17) 김희숙, 「고운별 이고운별」, 『엄마는 파업 중』(푸른책들, 2001), p.22.

18) 앞의 책, p.33.

는 여성의 의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딸만 가진 며느리와 아들을 둔 고모의 정형화된 의식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살아가면서 남성과 사회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모순적 행위이다. 진정한 평등은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지 않고 전통적 관습에 대해 개어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지 않을까. 관습적인 여성상보다는 미래의 여성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인물 창조에 동화가 앞장서 나갔으면 한다.

## 2) 성역할의 평등성

성역할이란 한 사람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여자 또는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즉 행동 양식, 태도 가치 및 인성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 역할은 남성의 행동과 여성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대로써 양성에 부여된 가족역할, 직업역할, 정치적 역할은 물론 자아개념, 심리적 특성도 포함된다.<sup>19)</sup>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은 남성다움<sup>20)</sup>, 여성은 여성다움<sup>20)</sup>을 이상적인 미덕으로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도식화된 전통적 성 역할 구분은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일면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한사람에게 공존하는 '양성성'의 개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성적인 특성 및 여성적인 특성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 아동문학에서도 적극

19) J. Lipman-Blumen, *Gender Roles and Power*(Engle-Wood Cliffs:Prentice-Hall, 1984), p.2.

20) 강하고, 이성적이고, 진취적이며, 사회적이고 외향적이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 신념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하며, 감수성이나 모성애적 역할이 없다는 것. 이러한 특징은 감정보다 행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게 한다.

21) 순종적, 수동적, 의존적이며, 감성적, 감상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고, 매력적, 동정적이고, 이해심이 많으며, 온화함과 부드러움의 특성. 가정 내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돌보는 것.

수용해 나가야 할 일이다.

「꿈을 찾아 한 걸음씩」<sup>22)</sup>은 삼성문학상을 받은 이미애의 장편 동화이다. 주인공 손두본은 남자지만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다. 수학 선생님이신 아빠와 유명한 학원의 영어 강사인 어머니 사이에 외동아들로 태어난 손두본의 장래 희망은 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다. 이는 그만큼 손두본이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엄하지만 사랑으로 자식의 꿈을 이해해주는 엄마, 아빠, 용기를 주는 삼촌, 여자 친구 나경이 등 주변 인물에 의해 세계적인 요리사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

“누가 너더러 밥을 하랬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하고 있지. 사내 자식이 주걱 들고 국자 들고 설치는 거 난 못 본다. 보기 흉해.”<sup>23)</sup>

아직도 만연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일도 정작 자기 문제나 자기 아들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손두본의 어머니 역시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자기 아들이 요리사가 되는 것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조건 싫다’는 것이어서 주인공은 더 절망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내면에는 그 꿈이 소중한 것일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꺾끗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고정된 편견 때문에 자기 꿈을 잃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준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는 이와 비슷한 외국 작품으로는 얼마 전에 출간된 「레나는 축구광」<sup>24)</sup>을 꼽을 수 있다. 주인공 레나는 축구팀

22) 이미애, 『꿈을 찾아 한 걸음 씩』(문학사상사, 2000).

23) 앞의 책, p.23~24.

정식 선수이다. 레나가 아주 어렸을 때 레나 아버지는 딸에게 축구를 가르쳐 줬다. 레나가 다섯 살이 되어 남자 아이들이 축구팀에 들어오게 되자 레나는 더 이상 축구팀에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레나의 아빠와 축구팀 감독은 레나에게 축구를 계속하라고 말한다. 이 작품 어디에도 레나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남자아이들이 축구팀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레나가 축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다. 다만 레나가 수학 공부를 게을리 하자 레나 엄마는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레나가 학생으로서 자기 본분을 등안시하였기 때문이었지 여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뿐이다.

“우리 아빠가 늘 하시는 말씀인데 여자란 믿을 수가 없대. 여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꼭 아이를 가졌다느니 뭐니 해서 남자들을 골탕먹이기만 한 대. 그래서 여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대!”

“내가 아이를 가진 건 아니잖아!”<sup>24)</sup>

인용문은 축구팀 선수로 같이 뛰고 있는 아르네가 레나에게 공격수로써의 책임감을 일깨워 주자 레나가 소신 있게 대응하는 부분이다. 정신분석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인간의 성은 심리적으로 양성성을 띠고 있다’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21세기 바람직한 인간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발현시키는 양성적인 인간상이라는 데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 나타난 남자아이들처럼,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역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 예로 지금 거의 모든 산부인과에서는 딸을 낳은 산모에게는 분홍색 가방을, 아들을 낳은 산모에게는 하늘색 가방을 준다. 태어나

24) 키르스텐 보예, 박종대 역, 『레나는 축구광』(계림북스쿨, 2001).

25) 앞의 책, P.27.

면서부터 아이는 ‘색’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놀이를 성에 따라 나누고, 어머니는 요리나 빨래를 하고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거나 집안을 수리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고정된 성역할을 학습받기도 한다. 학자들은 성역할이 타고 난 인간의 속성이 아닌, 문화적 소산임을 강조하여 어릴 때부터 보다 자유로운 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동화에서 성역할 역시 남녀간에 융통성 있게 상호교환 가능한 평등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삐뚤삐뚤 오말숙」<sup>26)</sup>은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말숙이를 통해 남녀 평등 문제를 시도한 작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말숙이를 남자아이처럼 상고머리에다 바지를 입혀서 키운다. 덕분에 말숙이는 태권도가 2단인데다가 성 역할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란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면서 말숙이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작품 역시 자기 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겪는 말숙이가 스스로 현실 벽을 슬기롭게 뛰어넘기보다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남자아이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만이 진정한 여성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이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실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화에서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남성의 역할이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역할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작품도 많이 형상화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변화 없이 여성의 기대만 증가된다면 여성들은 새롭게 변화된 역할과 기존의 역할 모두를 담당해야 할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될 지도 모른다. 보다 성숙한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갈등과 모순, 편견과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

26) 정영애, 『삐뚤삐뚤이 오말숙』(예림당, 1993).



는 일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책임을 다하는 인간의 모습이 동화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4. 마무리

동화에서의 남녀 평등의 문제를 교과서 문학 작품 속에 내재된 남녀 차별의 실태와 성 평등을 다룬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실태 자료를 통해 정리한 결과 가장 성차별적 요소가 적어야 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성비의 불균형과 성정형화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비의 불균형과 정형성은 어린이의 의식을 도식화하고 성적인 편견을 학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어린 시기부터 인식되는 성차별과 성 역할의 고착화는 어른이 되면 이미 습관화되어 바꾸기 어렵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양성의 평등 문제는 어린 시기부터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성 평등을 다룬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살펴보았지만 많은 동화에서 여성에 대한 정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음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교과서 동화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작품 구하기가 용이치 않고 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기존에 발표된 동화와 최근 잡지에 발표된 작품에서 추렸으나 많지 않았음). 살펴 본 동화에서는 여성이 처한 현실적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남성과의 '차이'나 여성의 독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성급함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남녀 평등성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평등하게 공유해

나갈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아이 스스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현실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구현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인간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화에서 성차별은 더 이상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를 지니더라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어린 시기 아동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가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정형화된 성차별을 너무도 당연시해온 경향이 짙다. 이에 대한 작가와 독자의 자각이 필요하다. 특히 동화를 쓰는 작가들이 양성 평등 문제에 지금보다 진지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여성 정형화에 대한 편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한 할머니나 어머니를 단순 미화시키는 일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여자아이의 등장을 균등하게 하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형상화되어야 한다. 문구 역시 남성 중심적 언어를 자제하고 양성 평등적 문구로 형상화해야 한다. 여성 인물을 창조할 때는 경험된 여성이나 여성의 현실을 그리기보다는 미래 여성의 현실이나 여성상을 형상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동화에서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남성의 역할이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역할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작품도 많이 형상화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투사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에서는 평등한 성 역할과 미래 지향적 여성 이미지 형상화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The Problem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Fairy Tales

Kim Jayeon

Fairy tales have the power to affect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hildren in their childhood, so a fairy tale ha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in itself of the story in spite of its simple development. And then we have to treat male and female as an impartial subject in the fairy tale which makes children access to a literature for the first time. In western the feminism in the part of children's literature spreads widely and so the writer is able to awarded the prize for woman writer as same as the adults' literature. However our situation is different with the western. Still now the Korean fairy tale tends to show that the sexual discrimination formatted unconsciously in our society is natural. The writers and readers of fairy tale need to realize this situation. If the fairy tale writers can not cope with the problem of both sexual equality more than now, the prejudice against formatted women in our society could not be little changed.

If the aim of feminism is that woman rightly realizes herself and plows through her life all by herself, the role of children's literature which affects the view formation of evaluation through childhood in contemporary society has to get more larger. The consciousness for both sexual equality need to set up from childhood because the general ideas obtained in childhood are hard to change when they were grown up. Especially children have lots of tendency to identifying or tracing them-

selves with the characters of fairy tales. So children's literature for children has to try to have a recognizable shape as the formation of the equal role for sexuality and the woman image what has a bright future before it.